

分析의 單位와 水準*

姜 信 澤

<目 次>	
第1節 方法論的 個人主義와 神秘主義	1. 社會科學의 特殊性에 대한 見解
1. 概念과 理論	가. 還元과 構成의 批判
2. 方法論的 個人主義：第1類型	나. 階層構造概念
3. 方法論的 個人主義：第2類型	다. 巨視社會理論
가. 理論과 說明	라. 一般體制哲學 (또는 理論)
나. 相互作用法則	2. 分析의 單位와 水準
다. 構成法과 還元	가. 行動單位와 集成單位
第2節 分析의 單位와 水準	나. 對象單位와 主題單位
	다. 分析水準

[要 約]

方法論 個人主義와 形而上學的 神秘主義에 대한 理解는, 社會科學의 特殊性에 대한 主張과 分析의 單位 및 水準을 理解하기 위하여 必要하며 理論構成, 接近方法 및 政策論 等の

* 이 글은 筆者가 政府의 國費國外派遣研究教授로 1979年 10月부터 1980年 9月까지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政治學科에 머무는 동안에 整理한 것이다. 이 機會를 빌어 서울大學校와 文敎部 當局에 깊은 感謝를 드린다.

이 글은 追後에 出版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單行本의 一部로서 執筆되었다.

假題：社會科學研究的 論理

第1章 序 論

第1編 理論의 構造

第2章 概念, 定義 및 概念形成

第3章 理論과 模型

第4章 說明과 豫測

第5章 分析의 單位와 水準

第2編 理論構成

第6章 理論構成과 確認

第7章 發見의 類型

第3編 接近方法—原型的의 追求

第8章 個人과 心理

第9章 役割論

第10章 集團論

第11章 通信論

第12章 構造—機能論

第13章 體制論

第4編 政策論

第14章 理論과 實際

第15章 政策學

理解에도 도움이 된다.

方法論的 個人主義 第1類型은, 科學에서 使用하는 記述用語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個人水準의 用語와 集團水準의 用語間(또는 下位水準의 用語와 上位水準의 用語間)의 關係이다. 個人主義에서 主張하는 것은 모든 集團의 屬性(또는 그것을 表現하는 用語)은 個人(個體)의 屬性과 屬性들간의 關係에 의하여 構成(또는 定義)될 수 있다는 主張이다. 이것을 否定하는 것이 神秘主義로서 集團은 그 自體水準의 獨特한 屬性이 있고, 이런 屬性中에는 個人屬性으로 定義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個人主義者들로 볼 때, 한 水準에 없는 屬性이 다른 水準에서 나타 난다는 것이 奇異하고 따라서 記述上の 生成으로 다룬다. 絶對的 生成論者들은 論理上 또는 原則上 集團屬性은 個體(部分)屬性을 통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이고, 相對的 生成論者들은 어떤 時點의 知識水準으로 보았을 때 個體屬性을 통하여 集團屬性을 알 수 없을 때에만 生成을 認定하고 知識이 더 발달하면 解決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個人主義者는 相對的 生成論者이다.

方法論的 個人主義 第2類型은 個人水準의 理論과 集團水準의 理論間(또는 下位水準의 理論과 上位水準의 理論間)의 關係이다. 모든 集團理論은 個人理論으로 還元될 수 있고 反對로 個人理論으로 부터 모든 集團理論을 構成할 수 있다고 個人主義는 主張한다. 그래서 個人主義를 還元主義라고도 부른다. 個人水準理論에서 集團水準理論을 構成하는 데는 構成法만 알면 되는데, 이 構成法은 經驗的인 法則으로서 現象이 조금만 複雜해지면 찾아 내기 어렵다. 따라서 個人水準으로 說明할 수 없는 集團現象의 存在 즉 說明的 生成이 있다는 것을 個人主義者들은 現實的으로는 認定하나 論理的 原則的으로는 否認한다. 社會科學에서 還元主義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社會學, 政治學 等 集團現象을 다루는 學問을 心理學으로 끌어 내리려는 心理的 還元主義 傾向때문이었다.

더구나 社會科學者들은, 個人主義와 神秘主義가 哲學的으로는 중요한 爭點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풀 수 없는 問題라고 보고, 이런 풀 수 없는 爭點을 根據로 하여 社會科學研究에는 不適合한 方法이 強要 當하고 있다고 不平한다. 그래서 爭點을 認定하되 分析水準決定은 실제적 節次上的 問題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社會科學의 特殊性 때문에 神秘主義의 主張을 部分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見解中에는 階層構造概念, 巨視社會理論, 一般體制理論(哲學) 등이 있다.

階層構造概念은, 自然秩序와 人爲의 秩序에는 各종의 層, 段階, 組織 等の 階層이 있는데 各級 水準의 層마다 特有의 特徵 變數 法則과 原理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階層構造概念은 소위 「知識과 統制의 3段階」라는 생각이나 意識水準에 3段階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理解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社會科學者들 중에서, 神秘主義의 立場을 擇하는 사람들도 科學의 論理를 전적으로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科學의 特異성을 다룰 수 있게 全體(一體)에 대한 論理가 認定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다. 巨視社會理論은 巨視水準에서 나타나는 生成屬性으로 構成되는 理論인데 重要的 社會的 行爲者의 行動은 이런 理論으로만 說明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個人이나 小集團에 관한 微視理論을 否定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巨視社會理論은 全 理論體系의 一部이다.

一般體制理論은 現象의 內容, 分析道具 및 分析樣式이라는 三者를 相互 符合시켜 보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複合的 現象의 研究에 있어서의, 同一構造性 發見, 類推模型의 使用, 演繹的 構成物의 敎示의 使用, 理論構成의 兩面性 等を 戰略的 指針으로 삼고, 神秘主義, 有機體觀, 敎示物使用, 巨視決定性, 理念型, 分類 및 類型 等を 使用하는 節次를 提案하고 있다.

以上 여러가지 見解를 알아 보았는데 分析水準의 決定은 理論的 見地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分析水準을 定하는 方式은 對象單位와 主題單位의 관념적인 關係에서만 理解될 수 있다. 分析의 對象單位는 研究者가 說明하려는 單位이고 主題單位는 對象單位를 알기 위하여 觀察하는 單位이다. 이 區分은 觀念的인 것으로 실제 經驗的으로는 同一한 單位가 說明對象인 同時에 觀察主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同一水準에서 觀察·說明하는 것이고, 主題單位가 對象單位와는 다른 水準에 있으면 觀察은 다른 水準에서 하고 說明은 自體水準에서 하는 것이 된다. 이런 水準의 決定은 理論的 要請에 따라 決定될 問題이다. 對象單位의 屬性을 알기 위하여, 낮은 水準의 主題單位의 屬性으로 還元하기도 하고 下位單位 屬性으로부터 構成하기도 하며 높은 水準의 主題單位로부터 그 脈絡의 屬性을 歸屬시킬 수도 있다.

第 1 節 方法論的 個人主義와 神秘主義⁽¹⁾

1. 概念과 理論

社會科學者들은 社會科學에서 使用하는 概念과 理論의 獨自性을 主張하며, 이러한 概念과 理論 때문에 一般的인 科學的 方法論과는 다른 別途의 方法論을 使用하여야 된다고 主張한다. 여기서 말하는 「方法論」은 물론 科學의 論理를 말하는 것이지, 分野마다 다른 觀察과 分析의 「技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科學哲學者들은, 妥當化의 脈絡(context of validation)에서 바라 본 科學의 論理는 모든 科學分野에서 다 같기 때문에 社會科學方法論의 特殊性을 主張할 根據가 없다고 말하고, 社會科學에서 使用하는 概念과 理論의 性格이나 特徵을 分析하여 解明한다. 그런데 이러한 分析과 解明過程에서, 觀察可能한 實證的 實例를 強調하는 나머지 어떤 對象의 部分이 物理的 實體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重視하려는 傾向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一部 社會科學者들은, 科學哲學者들의 이러한 分析主義와 物理主義의 傾向이 自然科學의 論理를 社會科學

(1) 第 1 節은 拙稿 「政治學의 理論單位와 方法論的 個人主義」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論叢 10 卷 1號(1972), pp. 236-246의 一部分을 加筆한 것이다.

研究에 強要함으로써, 社會現象의 理解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論議에 관련된 중요한 見解가 方法論的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形而上學的 神秘主義(metaphysical holism)이다. 心理學과 社會學 等の 分野에서는 이들 두 見解에 관한 解明은 이미 끝난 問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政治學이나 行政學 分野에서는 길이 다루지 않는 것 같다. 本稿에서 이 問題를 다루는 目的은 社會科學의 特殊性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에 따른 分析의 單位와 水準을 理解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個人主義와 神秘主義에 관한 理解는 發見의 脈絡에서 이루어지는 理論構成과 妥當化, 發見 및 創造의 脈絡을 兼하여야 되는 政策形成論에 관한 見解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 論爭의 실마리를 概念과 理論의 性格에서 부터 찾아 보자.

科學에서 사용하는 記述用語(descriptive terms)는 事物과 그 特徵을 指稱하기 위한 것이다. 概念用語 定義에 관하여 解說할 때, 概念은 事物에 관한 생각이며, 用語는 이런 생각의 言語的 表現이고, 定義는 概念과 用語의 뜻을 밝히거나 規定하는 것이며, 「概念」이라는 말과 「用語」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代替해서 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 보려는 첫째 問題는 社會科學에서 사용하는 記述用語의 性格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概念과 概念의 連結이 一般論(generalization)이다. 一般論에 담긴 內容은, 하나의 概念이 指稱하는 事物의 事例(instance)가 있을 때 하나 또 하나의 概念이 指稱하는 事物의 事例가 있다라고 하는 言明이다. 두개의 概念과 하나의 關係가 一般論의 最少要件이다. 그리고 一般論은 法則的 言明이며 이러한 法則的 言明을 體系적으로 連結한 것이 理論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 보려는 둘째 問題는 社會科學에서 使用하는 理論의 性格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方法論的 個人主義에서 다루는 用語와 理論의 問題는, 分析의 單位와 水準의 問題인데, 첫째는 個人用語(individual terms)와 集團用語(collective or group terms)間的 關係이며 둘째는 個人水準理論과 集團水準理論間的 關係이다.⁽²⁾ 편의상, 用語問題는 方法論的 個人主義 第1類型이라 부르고 理論水準問題는 方法論的 個人主義 第2類型이라 부르겠다. 個人主義와 對立되는 主張이 神秘主義이다.⁽³⁾

대개 모든 見解의 差異가 다 그러하지만 個人主義와 神秘主義라는 見解의 差異도 여러가

(2) "Individualism"을 個人主義라고 번역하였으나, 뒤의 考察에서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때로는 個體主義의 의미할 때도 있다. 社會科學에서는 集團의 構成要素를 個人으로 보려는 (좀 잘못된) 見解가 있기 때문에, 集團과 對比되는 것이 個人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萬一 한 個人을 全體라고 보고 그의 心理的 要素나 生理的 要素를 部分으로 보면 이들 部分이 「個體」가 된다.

(3) "holism"과 "wholism"은 代替해서 쓰인다. 個體主義에 對比한 whole은 全體인데 그 全體의 屬性과 理論이 奇異하다고 보는데서 holism이라 부르고, 번역하여 「神秘主義」라는 用語가 되었다.

지 論爭은 수반한다. 個人主義는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라느니 神祕主義는 「部分의 和가 全體라는 것을 모른다」느니 하는 말도 다르게 된다. 그리고 科學의 모든 概念과 理論은 다국적으로는 個人用語와 個人理論으로 構成된다고 하면, 集團用語와 理論을 다루는 社會科學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社會現象의 決定要因은 個人이나 또는 集團이나 하는 決定論(determinism)까지 겹쳐서 論爭은 아주 복잡하여진다.

우리는 이런 論爭에 包含된 모든 爭點을 하나씩 解明하려는 것이 아니고 社會科學의 分析單位의 水準을 理解하는데 必要한 몇가지 見解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個人主義와 神祕主義에 관한 論議는 經驗科學으로서의 社會科學의 性格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政策科學으로서의 社會科學의 主張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도 緊要하다.

흔히 科學哲學에서는 正當化와 妥當化의 脉絡에서 科學活動의 結果와 產物이 지녀야 할 原則上의 論理的 構造가 強調된다. 여기서는 科學構造의 原則에 관한 理解를 바탕으로 하여, 發見의 脉絡에서 提起되는 社會科學의 特殊性에 더 關心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2. 方法論의 個人主義：第1類型

概念은 事物을 指稱하거나 事物의 屬性을 表現하는 用語이다. 그리고 個人들은 一定한 特徵(屬性)을 가지고 있으며 集團도 個人이 갖지 않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個人의 特徵을 表現하는 用語와 集團의 特徵을 表現하는 用語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前에 用語의 定義를 考察하면서 原語(primitive terms)와 定義된 用語(defined terms)를 區別하였고, 定義된 用語를 定義하는데 使用하는 原語가 觀察可能한 用語일 때, 經驗적이고 觀察可能한 實證과 連結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個人에 관한 用語는 그 實證物(referents)과 쉽게 連結될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즉 個人用語가 指稱하는 事物은 物理적으로 存在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集團用語는 어떻게 實證物과 連結되는 것인가? 集團用語에 의하여 表現되는 事物도 우리가 直接 觀察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見解의 差異가 생겨난다.

즉 集團의 屬性中에는 그 集團을 構成하고 있는 個人들의 屬性이나 이들 屬性間의 關係에 의하여 定義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아니냐가 論爭의 對象이다. 個人이나 個體를 가리키는 말 중에는 그것이 直接 觀察可能한 것이면, 더 以上 定義할 수 없거나 定義할 必要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集團屬性中에서도, 直接 觀察은 되지만, 個人屬性이나 그 關係에 의하여 定義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하여는 見解가 對立된다.⁽⁴⁾

모든 集團用語는 결국 特定 狀況下에서 여러 사람이 갖는 信念, 態度 및 行動에 관한 복잡한 類型을 指稱하는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고 하는 見解가 方法論의 個人主義이다. 이런

(4) May Brodbeck,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Definition and Reduction," in May-Brodbeck,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New York: McMillan, 1968), p. 282.

見解를 否定하는 것, 卽 個人屬性에 의하여 定義될 수 없는 그 自體의 屬性을 가진 一體(whole)나 集合體가 있다는 見解가 形而上學의 神祕主義이다. 하나의 事實을 記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또는 그 以上の 物體가 어떤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즉, 定義되거나 定義되지 않은 하나의 概念이 實證될 수 있는 事例(instance)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定義될 수 없는 集團屬性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記述面에 있어서 生成(出現, emergence) 즉 「記述上的 生成」(descriptive emergence)을 의미하며 方法論的 個人主義의 立場에서 본다면 神祕主義의 主張은 “descriptive emergence”를 認定하는 主張으로 보인다.

원래 生成論(emergentism)은, 全體의 水準에서 일어나는 現象이나 特徵을 그 部分에 관한 知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신기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生成論에 관하여서도 C.G. Hempel이 명쾌하게 解明하고 있다.⁽⁵⁾

첫째로, 어떤 하나의 全體(whole)가 가진 어떤 特徵이 生成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全體의 「部分」이 무엇인가를 明示하지 않고서는 提起할 수 없다. 가령 엘리트集團의 規模라는 屬性은, 엘리트集團에 屬하는 個個人을 그 構成部分으로 생각하면 쉽게 計算해 낼 수 있으나, 役割을 그 部分으로 생각하면, 役割數를 합하여 規模를 計算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構成部分의 어떤 屬性을 말하는가를 明示하여야 한다. 構成部分이 個人이고 그 屬性이 性別이면 이것을 土臺로 엘리트集團의 性別比率를 計算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萬一 役割을 構成部分으로 삼고 이 役割들의 役割認知도를 部分屬性으로 하고, 이들 屬性으로부터 엘리트集團이라는 全體가 가진 屬性인 意識水準을 알아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셋째, 部分에 관한 知識으로부터 全體가 가진 어떤 屬性을 알아낼 수 있으나 하는 것은 一般法則이나 理論에 달려 있다. 가령, 엘리트集團의 意識水準은, 그 構成員으로서의 個個人이 가진 役割認知가 어떻게 全體로서의 脈絡을 形成하여 作用하는가에 관한 法則이나 理論이 있으면, 非生成의인 屬性이다. 萬一 이런 法則이나 理論이 없으면 「意識水準」이라는 屬性은 生成的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屬性의 生成이란 어떤 現象에 固有한 것이 아니라 어떤 時點에 있어서의 知識에 달려 있다. 즉 「生成」이라는 것은 絶對的이 아니라 相對的이다. 現在 알고 있는 理論으로 박서는 生成的인 屬性도 未來에는 生成的이 아닐 수도 있다.

以上の 解明으로 「生成」을 더 엄격히 定義할 수 있다. 즉 어떤 全體로서의 對象이 가진 特徵을, 二 構成部分關係, 部分屬性 및 關聯理論으로부터 導出할 수 없으면, 그 屬性

(5) Carl G. Hempel,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p. 258-264

(特徵)는 生成의이다.

이런 Hempel의 解明에 따르면 「生成」이라는 생각은 相對的인 것이고, 科學者 중에서 絕對的인 生成論을 主張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런데 여기까지 合意하다라도, 方法論的 個人主義者와 神祕主義者間에는 強調點의 差異를 드러낸다. 즉 方法論的 個人主義者들은, 絕對的 生成은 없으므로, 個人水準과 集團水準을 연결하는 構成理論을 계속 연구하면, 現在 生成의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앞으로 알아낼 수 있게 되리라는 생각이고, 神祕主義者는, 個人屬性으로부터 導出하지 않아도 集團屬性을 觀察할 수 있으므로 이런 屬性들만을 가지고 理論을 構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부터는 方法論的 個人主義 第2類型의 問題가 된다.

3. 方法論的 個人主義 : 第2類型

가. 理論과 說明

이제 理論單位로서의 概念의 記述問題를 떠나서 個人水準理論(individual level theory)과 集團水準理論(group level theory)間의 問題와 관련된 몇가지 見解를 考察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言及한 것처럼 하나의 理論은 최소한 두개의 概念間의 關係를 表現하는 것이다. 좀 더 一般的으로 말하면 “하나의 理論은 經驗的으로 檢證할 수 있는 一聯의 言明들이며 그中에는 一般法則이 包含되어 있다.”⁽⁶⁾ 이러한 理論은 科學者들이 관심을 갖는 現象을 理解하고 說明하며 豫測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다.

概念이 있어서 個人用語와 集團用語間의 關係가 問題되듯, 個人水準理論 즉 個人屬性中心의 概念들만으로 構成된 理論과 集團水準理論 즉 集團屬性에 관한 概念들만으로 構成된 理論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만약 個人水準理論으로부터 점차 集團水準理論을 構成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결국은 個人水準理論이 모든 理論의 基礎가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個人水準理論만으로 人間의 모든 個人的 및 社會的 行動뿐만 아니라 人間集團과 社會現象을 說明하고 豫測할 수 있다면, 社會理論은 不必要하거나 終局的으로는 個人理論으로 還元(reduction)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個人的 行動과 社會的 事件間의 關係의 問題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社會的 法則 즉 集團과 그 屬性만을 言及하는 法則이, 個人的 行態에 관한 아무런 言及 없이도 社會的 事件을 完全하게 說明하고 豫測할 수 있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社會概念이 總體的으로 理解되고, 個人的 選擇은 英雄의 것이든匹夫의 것이든 아무런 影響을 미칠 수 없는 社會 또는 文化的 獨自的인 法則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見解는 강경한 社會的 決定論者(social determinist)의 입장이다. 反面에 모든 社會法則은 적어도 原則上으로는 個人法則으로 還元시킬 수 있다고 主張하는 見解가 있는데 이것도 一種의 方法論的 個人主

(6) Richard S. Rudner,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6), p. 10.

義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을 第1類型과 區別하기 위하여 第2類型이라 불렀다. 個人主義의 第1類型은 概念定義上 提起되는 問題이며 第2類型은 理論과 說明上의 問題로 提起되는 것으로서 兩者는 그 文脈을 달리하고 있다.

나. 相互作用法則

하나의 理論이 어느 程度나 完全한가 하는 것은, 그가 對象으로 하는 理論領域에서 一種의 閉鎖(closure)와 完全性(completeness)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理論이 使用하는 用語의 實證物들(referents)은 一定時點 또는 地域內에 있어서 오직 그들끼리만 相互作用하고 있는가의 與否와 同時에, 理論上 커다란 差異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變數가 理論表現에서 除外되고 있지는 않는가의 與否에 달려있는 것이다.⁽⁷⁾ 閉鎖, 完全性, 正確하게 確認할 수 있는 證據, 그리고 豫測 또는 計算의 時間的 確定性 등이, 最上의 知識이 가지고 있는 要素들이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法則을 過程法則(process law)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⁸⁾

그렇다면 社會에 관한 完全한 知識은 成立될 수 있는가, 즉 閉鎖되고 完全한 集團變數단을 포함하는 하나의 過程理論(process theory)의 形成이 가능한가 하는 問題가 個人主義의 立場에서 提起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개의 局面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政治學, 社會學 등의 分科가 社會科學에서 成立된 結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個人理論과 集團理論間的 關係로서 이 두 局面의 考察은 相互 關聯된다.

가령 政治學徒는 經濟的 要因이 그가 직접 關心을 가지고 있는 投票行爲를 說明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經濟的 要因自體를 說明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經濟發展論者들은 自己네들이 提示하는 經濟發展模型이 實現되지 않는 理由가 政治·行政의 要因때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政治·行政의 要因을 研究對象으로 삼는 일은 드물다. c와 같이 社會科學의 各 分科마다 變數를 區分하고 制限을 加하는데, 이러한 區分과 制限은 政治學, 社會學, 經濟學 등의 完全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떠한 社會科學도 獨自적으로 그 自體의 用語단으로서 完全성에 이르리라고 期待할 수는 없다. 完全性이라는 의미를, 一定한 理論單位間的 排他的인 相互 依存性이라는 엄격한 의미로만 본다면,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完全性이란, 人間行態의 全範圍를 둘러싸는 巨大한 하나의 社會科學의 成立에 의해서만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問題의 또 하나의 局面은 前述한 바와 같이, 個人理論과 集團理論間的 關係인데, 이것은 微視的 變數(micro-variable)를 쓰는 分野와 巨視的 變數(macro-variable)를 쓰는 分野間的 相對的인 關係이기도 하다. 가령 生理學은 心理學에 比하여 微視的이며 心理學은

(7) Brodbeck, *op. cit.*, p. 282.

(8) Gustav Bergman, *Philosophy of Scie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7), Ch. 2.

(9) Brodbeck, *op. cit.*, p. 293.

社會學이 比하여 微視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兩者間에 還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로서 提起된다는 것은 이미 言及하였다.

다음은, 하나의 科學은 다른 科學으로 原則上 還元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立場에서 가령, 心理學과 集團科學을 어떤 論理로 連結하는가를 考察하겠다.

다. 構成法과 還元

完全히 하나의 理論은 그 體制(system)가 어떤 주어진 時點에서 어떤 狀態(state)에 있는가를 알면, 다른 모든 時點에 있어서의 그 體制의 狀態를 計算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完全한 理論은 소위 基本狀況(elementary situations)에 관한 法則 以外에, 그 體制의 範圍를 增加시켜 줄 수 있는 다른 類型의 法則을 包含하는데, 이러한 法則은 理論 그 自體로부터 演繹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基本的인 體制로부터 더 複雜하거나 水準을 갈리하는 體制를 計算해 낼 수 있게 하여주는 法則을 構成法(composition law or rule)이라고 부른다.⁽¹⁰⁾

만약 우리가 構成法만 제대로 찾아 낼 수 있다면, 分명한 定義와 더불어 個人의 行態단을 研究하면 될 것이고 별도로 集團의 行態를 研究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科學은 巨大한 單一分野밖에 없고, 그것은 個人水準의 理論을 基礎로 하여 形成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構成法이 있기만 한다면 社會學이나 政治學을 個人屬性中心의 理論으로 還元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論理的 作業에 不過할 것이다. 이런 見解를 還元主義(reductionism)라고 부른다.

위에서 본 바와 같다, 方法論의 個人主義의 立場을 取하는 實證的 經驗論者에게는 社會法則은 個人에 관한 法則으로 原則上 還元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原則上 可能하나 實際로는 困難한 경우를 볼 수 있다. 構成法은 어디까지나 經驗的인 一般法則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限界點에 到達해서는 構成되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一定 水準 以上の 複雜한 體制에 到達하면 人間行態로부터 그 體制의 理論을 構成할 수 있게 하여 주는 法則이 없을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行態에 관한 法則으로부터, 構成法을 포함한 集團行態의 法則을 導出해 낼 수 없다면, 이것은 說明上的 變異 即 一種의 說明的 生成(explanatory emergence)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듯 個人主義者들로 보아서도, 個人에 관한 法則으로부터 모든 社會法則을 導出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原則上 可能하나, 실제로는 不可能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즉 相對的 生成만을 認定한다. 이와 對照되는 것이 社會決定論으로서, 社會法則中에는 個人에 관한 어떠한 法則으로부터도 豫測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10) 一部分은 Bergman, *op. cit.*, Ch.3. 및 Brodbeck, *ibid.*, p.298 參照.

社會科學은 그 自體의 論理가 있으므로 비록 그 用語는 個人屬性에 관한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社會學의 心理學에로의 轉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問題를 자세히 다룬 것이 Quentin Gibson, *The Logic of Social Inquiry* pp.92-112.

以上 方法論的 個人主義의 考察에서 나타 난 全體, 記述의 生成, 構成法, 還元, 說明的 生成 等の 概念은 社會科學의 分析單位와 分析水準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第 2 節 分析의 單位와 水準

1. 社會科學의 特殊性에 관한 見解

가. 還元과 構成의 批判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科學哲學者들은 妥當化의 脈絡속에서 科學構造의 論理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發見의 脈絡에서 活動하는 科學者들에게는 哲學者들의 論爭이 實用性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方法論的 個人主義가 提起하는 個體로의 還元과 全體로의 構成問題에 對하여서도 不滿이 있다.

政治學者 Heinz Eulau는 還元이니 構成이니 하는 것을 哲學的 爭點으로 다루는 것에는 興味가 없고 그것을 分析의 節次로서 다루어 보고 있다.⁽¹¹⁾

먼저 還元に 對한 批判부터 알아 보자. 하나의 研究方法으로서의 還元主義(reductionism)는, 큰 單位를 說明할 때, 그 單位를 構成하고 있는 可能한 限 最小의 單位나 要素로 說明하는 것이 있다는 見解이다. 이런 還元主義가 假定하는 것은, 어떤 現象의 단순한 水準에서 일어나는 事件이 더 「根本的」이라는 생각이다. Eulau가 還元に 對한 이러한 哲學的 側面을 批判하는 근거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理由때문에 풀 수 없는 方法論的 爭點이라는 것이다.

첫째, 分析의 水準을 어디에다 定하느냐 하는 것은 研究者의 理論的 觀點에 달린 것이지 方法論的 考慮에 달린 것이 아니다.

둘째 研究對象中에는 그 屬性을 還元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研究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 實際的인 근거에서 還원이 不適合한 경우가 있다. 왜냐 하면 研究對象을 더 작은 要素로 分析시키더라도 그런 要素를 觀察할 수 없거나 그런 要素가 無意味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還元主義와 對照되는 것이 神秘主義이고 그것은 研究對象을 하나의 全體(whole)로 바라 보아야 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神秘主義의 要求에 대하여서도 Eulau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선 直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은 가지를 보기전에 나무를 보고 잎을 보기전에 가지를 보듯, 部分을 보기전에 全體를 본다. 그런데 實際로 經驗的 研究에서는 이런 節次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全體의 屬性은 쉽게 觀察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全體의

(11) Heinz Eulau, *Micro-Macro Political Analysis: Accents of Inquir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9), pp.12-13.

部分으로부터 構成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研究對象을 그냥 하나의 全體로서 다룰 것이냐 또는 構成要素로부터 構成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方法論上的 長點如何로 決定할 問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 理由때문에, 理論上的 關係如何에 달린 問題라고 보고 있다.

첫째, 하나의 理論的 見地에서 部分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理論的 見地에서는 全體로 보일 수 있다.

둘째, 하나의 研究對象을, 그 統合的 屬性을 통하여 직접 다루건 또 構成要素로부터의 構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루건 간에 그것을 하나의 全體(一體)로 다룰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것이 集團의 行爲者나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이 集團의 行爲者나 의 如何는 진정한 行動體制나 또는 人爲的인 集合體나에 달려 있다. 法院, 議會 等은 一體로서 다룰 수 있다.

셋째, 還元의 경우처럼, 構成에도 實際的인 限界가 있다. 部分들을 結合시켜서 理論的인 體制를 構成하였을 때, 때로는 그런 體制가 現實에서는 存在하지도 않는데 實體視(reify)할 可能性이 있다.

要件대 分析水準의 選擇은 方法論的 見地에서 미리 決定할 것이 아니라 研究對象과 關聯된 理論的 見地와 實際上的 便宜에 따라 決定하면, 還元과 構成에 關聯된 哲學的 爭點을 認定하면서도 實際의 研究를 進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分析水準을 決定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Eulau의 見解는 뒤에서 더 考察하겠다. 이에 앞서서, 社會科學의 特殊性 때문에 階級主義의 主張을 加味하려는 階層構造概念, 巨視社會學, 그리고 소위 一般體制哲學 等의 立場을 간단하게나마 살펴 보면, 社會科學의 分析單位와 水準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階層構造概念

階層構造(hierarchical structure)라는 概念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自然秩序의 序列로 決定하는 方法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人爲的인 秩序를 配列하는 方法으로 생각되기도 한다.⁽¹²⁾ 따라서 여러가지 見地에서 階層構造의 概念을 알아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層(strata), 段階(layers) 및 組織水準(organizational levels)이라는 세가지 概念만 알아 보겠다.⁽¹³⁾

(12) 行爲學徒들에게는 組織의 階層이라는 概念이 親熟한 概念이나. 그런데 「階層構造」라는 概念에 對하여 近來에는 哲學者의 檢討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階層構造論者라는 사람도 있다. 이 概念이 方法論上으로도 關心을 끄는 理由는, 研究對象의 分割이나 區分을 어느 水準에서 해야 便利하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體制의 한 水準으로부터 다른 水準으로 移行해 가는데서 生成되는 屬生을 보는 見解와도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13) 以下の 內容은, M.D. Mesarovic and D. Macko, "Foundations for a Scientific Theory of Hierarchical Systems," in Lancelot Law Whyte, Albert G. Wilson and Donna Wilson, eds., *Hierarchical Structures* (New York: American Elsevier, 1969), pp. 29-49 參照.

(1) 層(strata)

어떠한 複合體制(complex system)든지, 그것을 完全하고도 자세하게 描寫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體制는 여러가지 水準으로 抽象化하여 묘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理由는 理解를 위한 單純化와 說明을 위한 具體的 描寫라는 相反되는 目標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體制를 여러 水準으로 나누어 놓으면 各水準別로 그 體制의 機能을 묘사하기 위한 特徵, 變數, 法則 및 原理 等を 動員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와같이 描寫의 便宜를 위하여 各水準들을 分雜시켜서 閉鎖的으로 다룰때 생기는 階層制의 概念을 層化된 體制 또는 層化된 描寫(stratified system or stratified description)라고 부른다.

가령 하나의 生物體도 分子, 細胞, 組織 그리고 全體的인 有機體라고 하는 여러가지 水準으로 나누어 描寫할 수 있는데 分子水準의 法則과 有機體水準의 法則은 다르다. 또 大學 教育部門의 專業도, 보는 見地에 따라서, 講義라고 하는 實際 活動의 水準, 行政的 調整이라고 하는 管理의 水準 및 政治·社會的 機能이라고 하는 價值(value)의 水準別로 層化하고 水準別로 각각의 變數, 法則 또는 原理 等を 통하여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講義라고 하는 活動을 想定하지 않고서 管理問題를 생각할 수 없으며, 또 大學管理가 없는 大學教育上의 價值實情을 想像할 수 없다. 그러나 各水準間의 要素들 사이에 1對1의 對應關係가 있는 것은 이니다.⁽¹⁴⁾

(2) 段階(layers)

이것은 복잡한 決定作成過程이라는 見地에서 생각할 수 있는 階層概念이다.⁽¹⁵⁾ 복잡한 決定作成過程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決定問題를 몇개의 部分으로 나누어 그 各各을 階層的으로 해결함으로써 全體問題가 解決되는 수가 있다. 目的-手段分析에서 行하고 있는 것처럼 上位段階의 決定이 下位段階의 範圍를 規定해 주고, 下位段階에서는 이렇게 設定된 範圍內에서 問題解決을 試圖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複雜한 決定作成의 問題는 階層的으로 配列된 좀 더 單純한 下位問題들로 構成되며, 모든 下位問題의 해결을 통하여 원래의 問題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階層制는 決定段階의 階層構造(hierarchy of decision layers)라고 부를 수 있고, 全體的인 決定作成體制를 多段階體制(multi-layer system)라고 부를 수 있다.

(3) 組織上的 階層制

組織上的 階層制(organizational hierarchies: multi-level multi-goal systems)는 複合的인 것이다. 이 概念속에는 첫째 體制는 뚜렷하게 識別할 수 있는 相互作用을 하는 一團의 下

(14) 筆者는 다음과 같은 두 論文에서 階層構造概念을 應用하여 보았다. 「行政組織上的 階層構造와 專門職」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論叢 14卷 2號(1976), pp. 84-99 및 「階層構造概念과 計劃豫算制의 事業構造 및 指標」 行政論叢 15卷 1號(1977), pp. 62-79.

(15) Stratum과 layer를 번역할 때 어느 것을 「層」이라 하고 어느 것을 「段階」라고 하느냐에 관하여는 異同이 있을 수 있다.

位體制들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下位體制中의 一部를 決定作成單位로 規定할 수 있고, 셋째 決定作成單位를 上下의 階層으로 配列할 때 그중의 어떤 決定作成單位가 다른 決定作成單位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統制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複數 水準의 多目的 階層體制로서 가장 代表的인 例는 公式的인 人間組織이다.

以上에서 要約 소개한 階層構造의 概念들은 여러가지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人間組織을 統合시켜 주는 基礎로서 役割行態, 規範 및 價値가 있다고 말할 때 이 三者는 抽象化의 水準인 同時에 價値가 行態와 規範을 包括할 수 있다는 階層의 思考이다. 또 어떤 個人이나 集團이 가지고 있는 知識의 體系化를 따질 때에, 部分(bits), 脈絡(context), 脈絡間의 連結(context-context)이라는 3個의 層을 생각할 수 있다. 斷片的인 情報나 資料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脈絡이 서지 않은 部分的 知識이며 部分들을 잘 連結시킨 脈絡의 體系化된 知識이다. 그러므로 왜 特定한 內容의 部分的 知識이 形成되는가도 考察할 수 있고 어떤 全體의 脈絡이 知識體系를 包括적으로 統合시켜 주는가도 考察할 수 있다.

Y. Dror은 知識과 統制의 水準에는 다음과 같은 三段階가 있다고 말한다.⁽¹⁶⁾

첫째는 自然環境에 관한 知識과 統制로서 비교적 많이 發達되어 있다.

둘째는 社會와 人間에 관한 知識과 統制인데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셈이다.

셋째는 위의 「統制의 統制」에 관한 知識과 統制로서 가장 뒤떨어진 分野이다.

이러한 知識水準에 相應하는 政策들을 實質政策(substantive policy), 綜合政策(megapolicy) 및 統制政策(meta-policy)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道具的 統制, 人間社會의 對話를 통한 相互理解 및 社會體制的 批判的 自己反省 등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한데 「統制의 統制」가 더 包括적이고 核心的이라는 思考가 깔려 있다. 이러한 思考들도 階層構造라는 概念 밑에서 더 쉽게 理解될 수 있다.

또 하나의 例를 보면 Amitai Etzioni는 意識水準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⁷⁾ 즉 첫째는 環境에 관한 意識이고, 둘째는 自我에 관한 意識이며, 셋째는 統制層(controlling overlayer)에 관한 意識이다. 이들의 關係에 있어서, 社會的 行動主體는 自我에 관한 意識이 없어도 環境에 관한 意識을 지닐 수 있으나, 環境에 관한 意識이 없이는 自我에 관한 意識을 지닐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自我에 관한 意識없이 統制層에 관한 意識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主張의 思考方式도 階層構造라는 概念을 念頭に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生成屬性(emergent properties)에 의하여 巨視社會理論을 構成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Etzioni의 主張은 階層構造를 하나의 主要한 方法論的 假定으로 使

(16) Yeheskel Dror, *Ventures in Policy Sciences: Concepts and Applications*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 Co., 1971), pp. 9-10.

(17) Am 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234-235.

用하고 있다.

다. 巨視社會理論

社會科學者 중에서 神秘主義 立場을 擇하는 사람들도 科學의 論理를 全적으로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社會現象의 特異性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뿐이다.

여기서는 巨視社會理論을 構成하기 위한 方法論上의 假定에 관하여 A. Etzioni의 생각을 소개하겠다. Etzioni는 말하기를 自然世界와 社會를 아주 抽象的으로 보면 同一한 科學의 原理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各 現象의 具體的인 論理를 보면 그 原理가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自然世界에 있어서는 「檢討 當하고 있는 것」과 「檢討하는 것」을 나눌 수가 없다. 自然世界에는 象徵層이 없고, 이 象徵層이 象徵的으로 設定한 事物의 狀態(目的)를 實現시키기 위하여, 다른 單位들 指導해 나가는 一團의 過程이 없다. 이러한 社會的인 自己統制를 機械的 論理로 理解할 수 없는 理由는, 그 論理가 社會單位에서 볼 수 있는 새 目的의 形成을 說明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

이와 같이 分析單位와 水準은 現象을 研究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決定될 문제이다. 그리고 論理的으로 봐서도 集團보다는 個人을 우선시킬 근거가 있다. 즉 現代社會學과 社會人類學의 理論에서는 「役割」을 基本單位로 삼는다. 個性과 集團은 다 같이 役割들의 結合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많은 學者들이 集團이 個人보다 덜 實在(real)하는 것으로 假定하여 個人을 理論의 主單位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19)

Etzioni가 볼 때, 集團(group)과 個性(personality)은 다 같이 分析的이고, 行動에 관한 感覺資料로부터 이루어진 概念上의 抽象이다. 同一한 行動이라도 社會學과 心理學의 觀點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單一行動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기에는 너무 작은 單位여서 行動의 一團 즉 役割을 基本單位로 삼는 것이다. 役割은 하나의 個性으로 結合될 수도 있고 社會單位(social unit)로 結合될 수도 있다. 즉 各 役割은 個性과 社會單位의 構成部分으로서 研究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生物的 單一行爲者가 지닌 모든 役割이 個性이고, 둘 이상의 이와 같은 行爲者가 지닌 補完的 役割의 結合이 하나의 社會單位를 形成한다.

役割이 아닌 個人을 社會集團의 構成要素로 생각하면, 個人에 관한 概念에 대하여 優先權을 주고 社會集團을 二次의 概念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위에서 言及한 役割理論에서 보던 無意味하다. 個性이나 社會集團이나 다 같이 役割이라는 「斷片」으로 이루어졌으므로 兩者는 同一한 抽象化의 水準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單位(unit)는 研究對象이며 變數(variable)는 單位の 屬性과 屬性들간의 關係이다. 여러 單位가 모인 것이 上位單位(supra-unit)이고 한 單位の 部分이 下位單位(sub-unit)이

(18) *Ibid.* p. 32.

(19) 以下는 *Ibid.*, pp. 43-50.

다. 이러한 上下單位들도 屬性 즉 變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 水準의 單位로부터 다른 水準의 單位로 옮겨 갈 때 나타나는 (또는 없어지는) 屬性이 「生成屬性」인 것이다.

巨視社會理論은 社會自體를 分析의 單位로 삼는다. 그리하여 社會—政治의 分析에 있어서 社會 그 構成部分 및 그 結合에 관한 資料는 別個의 現象으로 다루는 것이 더 生産的이고, 小集團 및 個人役割 등과 같은 下位水準의 單位の 屬性和 關係를 土臺로 해서 는 社會의 資料의 變量을 滿足스럽게 說明할 수 없다. 가령 國家政治는 投票者와 利益集團으로는 充分히 分析될 수 없다.

社會는 小集團의 屬性和 같은 크기(isometric)를 갖지 않은 生成屬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社會의 政治의 說明을 위한 完全한 理論을 構成하기 위하여는 巨視屬性을 다루는 理論이 必要하다. 巨視屬性은 巨視單位が 가진 屬性이며, 巨視單位는 그 影響의 大部分이, 하나 또는 그 以上の 社會, 그 結合, 또는 그 下位單位에 미치는 모든 單位라고 定義된다. 이 定義는 機能的 定義로서 階級, 人種集團, 社會運動 등은 巨視單位이며 地域社會와 複合組織이라도 社會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면 巨視的이고 그렇지 않는 限 微視的이다. 심지어 個人이라도 重要的 社會的(societal) 影響을 미치면 巨視的이다.

巨視理論은 巨視屬性的 結合으로 構成된 理論인데, 社會—政治의 一部 現象의 說明에서 巨視理論이 必要하다는 것 뿐이고 小集團 등을 다루는 微視理論이 계속 必要하다는 것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巨視理論은 全社會理論의 一部分이다. 즉 모든 社會의 行態는 巨視變數와 그 理論만으로 說明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Etzioni가 볼 때 還元主義와 微視分析의 壓力이 巨視理論 發展의 장애가 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還元主義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社會學을 心理學과 社會心理學으로 부터 分離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巨視社會學을 微視社會學에서 分離하지 않는 것이다.

汎社會內(societal) 現象을 微視的으로만 研究해서는 滿足스럽지 못한 理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社會的 變量의 一部는 巨視要因으로만 說明이 可能하다.

둘째, 長期的이고 歷史的으로 意義가 있는 要因이 作用하는 것은 巨視水準이다.

셋째, 微視水準에서는 構成員의 變化가 社會構造(social structure) 및 過程에 큰 影響을 미치나 巨視水準에서는 그렇지 않다.

넷째, 常備軍 租稅制度 등과 같은 歷史를 만드는 主要 資產(assets)과 道具는 巨視水準에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 還元主義의 限界나 巨視決定性에 관한 見解와 비슷하면서도 좀 特異한 主張을 하는 것이 「一般體制哲學」(General Systems Philosophy)이다.

라. 一般體制哲學 (또는 理論)

「體制」라든用語의 뜻이 多樣하고 體制分析, 體制理論 等の 用例가 또한 多樣해서 그 內容을 밝히기도 어려운데, 이제 어떤 學者들은 그들의 見解를 「一般體制理論」(a general system theory)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이 사실은 「理論」(a theory)이 아니라고 말하여 우리가 混同하기 쉽게 되어 있다. John W. Sutherland는 一般體制理論이 科學的 分析을 위한 하나의 根柢的으로 새로운 接近方法이라고 말한다. 즉 이 接近方法은 嚴密한 經驗主義, 實證主義, 直見主義(intuitionism) 또는 現象學(phenomenology)과 같은 좀 더 傳統的인 方式과는 論理的으로 그리고 節次上으로 對立된다. 一般體制理論이 이들 傳統的方式으로 부터 折衷的으로 要件들을 빌리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選擇過程에서, 그 構成部分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된다고 말한다.⁽²⁰⁾ 그래서 이 接近方法을 一般體制哲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一般體制理論에서 主張하는 것은, 이 世上의 現象中에는 서로 닮은 것이 많으므로 그 同一構造性을 活用하여 現象을 理解할 것, 社會現象中에는 複雜한 것이 많아서 機械論的으로 構成되어 있지 않으며 部分의 단순한 結合으로는 그 모습을 알아낼 수 없는 有機體的 現象이 있다는 것, 따라서 언제나 還元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科學主義(scientism)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精神이 優先이나 肉體가 優先이나 하고 따져 보아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研究에 있어서 觀念과 知覺을 모두 使用하며 研究對象에 따라 分析道具를 符合시켜야 된다는 것이다.⁽²¹⁾

一般體制理論의 소위 戰略的 指針은 다음과 같다.⁽²²⁾

첫째 複合的인 現象을 研究할 때에는, 더 잘 알려진 現象과 이 現象 사이에 構造나 機能面에서 무엇이든 同一構造性이 있는가를 찾아 내려는 意圖로 부터 出發하여야 한다. 現象間에 同一構造性(isomorphism)이 있으면, 그 因果關係에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現象을 研究할 때 相互間에 理論을 援用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模型의 性格을 考察할 때 알아 본 것과 같다.

둘째, 위에서 밝힌대로, 어떤 現象間에 同一構造的인 點이 있다는 것을 가려낸 다음에는 適切히 構成되고 限定된 類推模型(analogy model)을 使用한다. 이것은 現象을 觀察도 하기 전에 先驗主義的으로 類推를 使用하여, 現象을 觀念에다가 두들겨 맞추는 것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셋째, 研究에 있어서는 理論이 先行要件이든 무엇이든 처음에 敎示物(heuristics)로 使用할 수 있는 演繹的 構成物(deductive constructs)이 必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네째, 理論構成은 「야누스의 얼굴」(Janus-faced, 兩面)을 갖고서, 한 便으로는 그 理論의 經驗的 根柢를 찾아 보고, 다른 한 便으로는 더 높은 水準의 理論과는 어떻게 連結되는가

(20) John W. Sutherland, *A General Systems Philosophy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George Braziller, 1973), p. vii.

(21) *Ibid.*, 이것이 이 책의 要旨임.

(22) *Ibid.*, pp. 33-34.

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理論의 構成部分은 明示的으로 導入·連結되어야 하며, 省略的이거나 比諭的(parabolically)으로 導入·連結되어서는 안된다.

以上과 같은 戰略의 立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一般體制理論은 다음과 같은 節次上의 原則을 提示한다. (23)

첫째, 非機械的인 全體(whole)는 그 部分의 屬性들의 단순한 和나 乘이 아니다. 특히 社會體制의 大部分은 分斷된 部分(segmented parts)으로 構成된 것이 아니라 分化된 部分(differentiated parts)으로 構成되었기 때문에 階層上의 새로운 水準이 생겨날 때마다, 거기에는 전혀 새로운 屬性이 생겨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部分의 分析으로 부터 얻어진 知識을 合成하는 경우에, 즉 下位水準의 部分과 屬性을 단순히 모아 놓거나 統合하면 合成上의 誤謬(error in synthesis)를 犯할 可能性이 있다.

둘째, 還元主義者의 틀에 따라서, 體制의 모든 構成部分을 떼내어 研究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疑問이 생겨난다. 卽 이런 경우에는 合成上의 誤謬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萬一 우리가 體制의 모든 部分의 모든 屬性에 대한 經驗的 知識을 가지고 있고, 그 屬性들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關係에 대한 知識을 가지고 있다면, 이 知識은 全體에 관한 知識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社會體制는 開放體制(open system)로서 그것이 놓인 場(field)의 狀況과 相互作用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을 部分研究로서는 밝힐 수 없고, 둘째로는 實際的인 問題로서 모든 部分의 모든 屬性의 모든 關係로부터 全體에 관한 知識을 얻어 내는 것이 不可能한 일이며, 제재 대개의 社會體制는 有機體的이어서 그 部分을 따로 떼어 研究해야 無意味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社會 및 行態科學에서 支配的인 「有機的體制 또는 開放體制를 다룰 때에는 還元主義보다는 神祕主義的 分析樣式을 擇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還元을 하여야 하는 必要性까지를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部分을 다루기 전에 全體에 對한 自覺이 必要하다는 말이다. 즉 複合體制의 全體性格에 관하여 얼마간이라도 터득을 미리 하는 것이 人間科學을 意味있고 能率的으로 研究하기 위한 先行要件이다. 더 根本的으로 말하면, 一般體制論者들은, 全體로서의 實體에 대한 先行的 理論(부득이 조잡하고 暫定的이지만)를 한 뒤에 複雜한 現象에 接近하려 하는데, 이와 같은 理解가 伸縮性이 있고 經驗的 反應을 가진 敎示物로 쓰일 것이다.

이 敎示物이 經驗的 分析을 위한 變數選定의 準據가 되며, 經驗的 分析의 結果는 本來의 敎示物을 修正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 方法과 還元主義와의 差異는, 좀 더 規律있고 制約된 假說의 演繹의 方式이 無分別한 歸納의 樣式을 代替시킨다는 點이다. 神祕主義는 말하자면 哲學者의 概念上의 才能과 實驗科學者의 機械的 道具的인 才能을 再結合시켜 보

(23) *Ibid.*, pp. 34-45.

려는 試圖이다.

세째, 이러한 神秘主義를 더 有用하게 만드는 것이 巨視決定性(macro-determinacy)을 가진 現象의 存在이다. Etzioni의 巨視社會理論에서 말한 것처럼, 體制的 下位構成部分에서는 決定성이 없어도 體制的 높은 水準 또는 全體自體의 水準에서는 決定的이라고 다를 수 있는 것이 巨視決定性的 現象이다. 巨視決定성이 있는 限, 神秘主義는 가장 成果있는 接近方法일 뿐만 아니라 가장 能率的인 接近方法일 수 있다.

네째, 理想型(ideal-type), 分類(taxonomy) 및 類型(typology)은 複雜한 現象領域에 있어서의 科學의 發展을 위한 基本的 手段으로 使用될 수 있다. 흔히 分類나 類型만으로서는 理論을 構成할 수 없다고 하는데, 社會 및 行態의 研究에 있어서는 分類를 適切히 하고 理想型을 잘 構成하면, 그것이 假說的·演繹的 過程(hypothetico-deductive process)의 중요한 段階가 될 수 있다. 가령 農業社會와 產業社會라는 극히 初步的인 分類에서 어느 社會體制가 一旦 産業社會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가지 屬性들을 假說的이나 演繹해 내서 經驗的인 研究를 進行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第1節에서는 妥當化와 正當化의 脈絡에서 바라 본 方法論的 個人主義의 原則上의 問題를 考察하였으며 第2節의 앞 部分에서는 發見의 脈絡에서 바라 본 社會科學의 研究에 있어서의 神秘主義의 必要性을 여러 見地에서 알아 보았다. 다음 項에서는 實際 研究의 節次問題로서 分析水準을 決定하는 方法에 관하여 Eulau의 見解를 要約 提示하였다.

2. 分析의 單位와 水準

分析의 單位와 水準問題를 個人主義와 神秘主義로 兩極化시켜서 따져지를 않고 하나의 連續線上에서 相對的으로 보는 것이, 方法論上의 原則에 관한 論爭에 빠지지 않고 실제로 研究對象을 다루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Eulau의 見解이다.⁽²⁴⁾

가. 行動單位와 集成單位

이 見解에서는 우선 行動單位(action unit)와 集成單位(aggregate unit)로 區別한다.⁽²⁵⁾ 集合體(collectivity)인 경우에, 兩者의 差異는, 集合體全體를 위한 決定作成意志가 그 集合體에 內包되어 있는냐의 如否에 달려 있다. 行動單位로서의 集合體는 그 나름의 決定作成 能力을 가진 社會的으로 意味있는 單位인데 反하여, 集成單位로서의 集合體는 말하자면 任意的으로 分類해 놓은 集團에 不過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集成分類가 無意味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構成要素間의 相互作用關係의 結果로 나타난 統合된 單位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어느 行政部處를 구성하고 있는 要素들을 個人, 係, 課, 局 등으로 본다면 이들은 行動單位라고 할 수 있고, 그와는 달리 5級, 4級, 3級 등의 集團으로 分類해서 본다면 이들은 集成單位인 것이다. 勿論, 5級公務員 集團이 단일 勞動組合을 構成한다면 그

(24) Eulau, *op. cit.*, p. 12.

(25) *Ibid.*, p. 1. note 2.

性格은 後者에서 前者로 달라질 것이다.

나. 對象單位와 主題單位

分析水準問題는 두가지 必要 때문에 일어 난다. 첫째로 여러가지 單位는 分析의 同一한水準에기만 比較될 수 있으며 여러 單位의 屬性들은 같은水準에서만 相互 關聯시킬 수 있다. 둘째로 한 單位의 屬性은 그 單位의 自體水準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水準의 다른 單位로 부터 끌어 내야할 必要가 생길 수도 있다. 單位의 不可分의 屬性和 生成屬性 等단을 直接 觀察할 수 있고 나머지 屬性은 構成되거나 推定되어야 한다.

分析單位와 分析水準을 理解하려면 分析의 「對象單位」(object unit)와 分析의 「主題單位」(subject unit)를 區別해야 된다. (26)

對象單位는 우리가 그 行動을 說明하고자 하는 單位이다. 研究問題에 따라 單位가 決定된다. 따라서 個人들도 對象單位가 될 수 있고 集合體도 對象單位가 될 수 있다.

主題單位는 對象單位의 行動을 說明하기 위하여 그 行動을 觀察하는 單位이다. 그러므로 實際의 研究에 있어서 觀察되는 것은 主題單位의 行動이다.

對象單位와 主題單位的 區分은 單純히 觀念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經驗的 現實에 있어서는 하나의 對象單位는 同時에 主題單位가 될 수 있고, 또 對象單位와 主題單位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다. 分析水準

個人인 건 또는 여러가지 規模의 集團이건 間에 그것을 하나의 單位로 생각한다면 「分析의水準」(level of analysis)의 意味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어떤 하나의 單位가 同時에 對象도 되고 主題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그 單位의 行態를 그 自體의水準(at its own level)에서 觀察하고 說明도 하는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이 된다. (27)

이러한 생각은 論理的으로 볼 때, 어떤 單位에 관하여 觀察은 他水準(at another level)에서 하고, 說明은 自體의水準에서 할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 준다. 즉 만일 우리의 對象單位가 集團이라고 한다면, 分析水準이라는 생각에서 볼 때 그 集團은 自體水準에서도 觀察할 수 있고 다른水準에서도 觀察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때 어떤水準을 擇할 것인가가 自動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對象單位의 行態를 說明하기 위하여 어떤 主題單位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方法論的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問題가 아니라, 觀察者로서의 理論家 또는 研究者의 見地和 관심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分析의水準은 主題單位的 選定에 의하여 決定되고 主題의 選定은 觀察者의 理論的 見地에 의하여 決定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어떤 個人의 行動을 說明하려고 할 때 그 理論이

(26) *It d.*, pp. 8-9.

(27) *It d.*

個人屬性에 관한 것이면 그 自體를 主題單位로 觀察할 것이고 만일 그 理論이 個人的 狀況에 관한 것이면 이런 狀況을 主題單位로 삼고 觀察하게 될 것이다.

以上の 內容을 더 具體的으로 理解하기 위하여 Heinz Eulau의 例示를 좀 자세하게 引用하여 보겠다. Eulau는 議會組織의 各級水準을 單位로 삼아서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²⁸⁾

分析의 單位와 水準(例示)

主題單位 \ 對象單位	政 府	議 會	下 院	常任委員會	分科委	派 閥	個人(議員)
政	府	▨	→	→			
議	會		▨	→ B			
下	院			▨	→		
常 任 委 員 會					▨ A		
分 科 委 員 會						▨	
派 閥							▨
個 人 (議 員)							▨ C

摘要: A—斜線部分: 自體水準에서 觀察, 說明되는 경우
 B—橫線화살표: 單位屬性이 脈絡으로부터 歸屬됨
 C—下向垂直화살표: 單位屬性이 下位水準으로 還元됨
 D—上向垂直화살표: 單位屬性이 下位水準의 單位로부터 構成됨

圖의 縱列들(columns)은 分析의 對象單位들로서 그 行態를 說明해 보려는 單位들을 나타낸다. 여기에 나타난 7개의 單位들은 모두 實質的인 決定作成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서 個人으로부터 大規模的인 集團行爲者에까지 이르고 있다. 橫行(rows)들은, 7개의 分析의 主題單位로서, 그 單位들의 行態가 觀察되는 것이다. 分析의 水準은 縱列과 橫行의 交叉點에 의하여 규정된다. 斜線部分은 對象單位와 主題單位가 同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때 에는 그 單位가 自體의 水準에서 觀察도 되고 說明도 되는 것이다. 垂直線은 還元과 構成을 나타내고 있다. 下向의 화살표는 對象單位屬性이 下位水準의 主題單位로 還元되는 것을 나타내며 上向의 화살표는 下位水準의 主題單位가 가진 屬性으로부터 對象單位의 屬性이 構成되는 것을 나타낸다. 斜線部分의 對角線右側의 칸들은 主題單位의 屬性들이 對象單位의 屬性의 所在에 관하여 脈絡을 제공하여 주는 條件을 나타내고 있다. 橫線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主題單位의 어떤 屬性들로 부터 對象單位의 脈絡的 屬性을 推定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對象單位가 작은 것일수록 그에 대하여 脈絡的 屬性을 마련하여 주는 主題單位의 數는 많아진다.

가령 앞의 그림에서, 常任委員會를 對象單位로 擇하였다고 하자. 우리는 委員會의 여러

(28) 以下 列示는 *Ibid.*, pp. 15-16에서 引用.

가지 屬性에 관하여 그 자체의 水準에서 觀察도 하고 說明도 할 수 있다. 또한, 委員會는 分科委員會, 派閥 및 個人이라는 3個類型의 主題單位로 還元된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主題單位의 特徵的 屬性을 確認한 다음에, 그것을 委員會의 屬性으로 再構成할 수도 있다. 例컨대 個人들의 役割에 관한 研究로부터, 우리는 委員會의 役割構造를 構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派閥間 및 個人들 間의 關係에 관한 研究로부터, 委員會의 統合度を 構成할 수 있으며, 分科委員會의 機能에 관한 研究로부터, 委員會의 分業關係를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委員會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脈絡的 屬性(contextual properties)은 그 委員會의 環境을 이루고 있는 主題單位로부터 導出된 것이다. 委員會는 下院內에 存在하고 下院은 議會차에 存在하며 議會는 政府內에 存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政府, 議會 下院 等의 主題單位가 가지고 있는 特徵들은 委員會라는 對象單位의 脈絡的 屬性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以上의 考察에서, 社會科學研究의 分析의 單位와 水準에 관하여 妥當化의 脈絡에서 제시된 科學構造의 原則上의 論理와 發見의 脈絡에서 要求되는 實際上的 分析의 樣式을 理解하였으리라고 믿는다.